

# 이스타항공 바둑단, 전국체전 여성 단체전 은메달 획득

### 종합점수 반영 정식종목에 유일 실업바둑팀 소속으로 참가

이스타항공 바둑단 선수들이 '2019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일과 6일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바둑종목 대회에서, 전라북도 여성 일반부 단체전 대표로 참가한 이스타항공 바둑단 선수들은 5일 광주와 서울대 표팀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이어 6일 제주대 표팀을 이기고 올라가 경기대표팀과의 결승 경기에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바둑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확정배점 3600점으로 각 시·도별 종합점수 및 순위에 반영이 된다. 전북대표로 나선 이스

타항공 바둑단은 여자 일반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해 종별득점 7점과 메달득점 40점을 획득했다. 이스타항공 바둑단 김규리 선수는 "바둑종목이 종합점수로 반영되는 첫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식 스포츠로서 바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훈련과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강중화 감독을 필두로 류승희, 김규리, 채현지, 정지우 선수 등 4명의 여자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실업바둑팀으로 지난 5월 창단식을 가지고 정식 출범했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바둑단 선수들이 '2019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 전북대, 한글날 맞아 한국어 연수생 글쓰기대회 개최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가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대회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북대는 지난 9월 23일 한국어 연수생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쓰기대회를 가졌다. 최근 25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돼 10월 7일 오후 1시 30분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이 곳 로비에서 오는 25일까지 이들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운문과 산문에서 '나의 꿈'과 '여행', '가족', '스마트폰' 등의 주제를 주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창작하는 백일장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글동글한 가족'이라는 운문작을 낸 중국 유학생 고통노 학생이 대상 수상했다. 이외에도 25명의 유학생이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받아 상금과 함께 수상작을 전시할 수 있는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병원 의료인 양성 위한 장학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료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의·치대학 및 간호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2층 한벽루 홀에서 조남천 병원장과 정명자 교육수련실장, 전북대학 의·치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서 선발된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북대병원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의·치대학생 및 간호대생을 추천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의과대학 4명 치과대학 2명 간호대학 6명 등 총 12명에게 총 16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전달된 장학금은 우리 의료계를 젊어질 젊은 의학도들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병원 가족들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학업에 정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 전통문화CC 체험·홍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당 주간 행사에 LINC+사업단의 전통문화CC에서 체험과 홍보 부스를 운영,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국가적 과제인 전통문화발전의 방향성과 보존, 계승의 확산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통문화전당에서 발전시킨 입주 공방의 콘텐츠를 근거로 보고, 듣고, 즐기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혼례음식(한식) 조리 시연과 한복 입기, 패브릭 상품, 한지조명등, 천연염색 및 섰모빌 제작 체험을 통해 지적문화자산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도서 지역 학교에 '치어리딩' 교육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 교육학과 교수)가 도서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기부를 실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7일 김제 용지초등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어리딩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차례 수업을 통해 치어리딩의 정신과 의미부터 작품의 동작에 이르기까지 치어리딩의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며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처음에 치어리딩을 어려워했지만 점차 재밌게 참여하며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 학생들도 배우지 못하는 이채로운 치어리딩을 배울 수 있음에 기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93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7일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9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한기정 하가지점장, 전주시의회 강승원 의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호 사무처장, 다문화지역아동센터 임예정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개소 후 교육 및 보호, 직업재활 등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교실별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 남원시, 희망 담은 사랑의 반찬 배달

남원시는 관내 어려운 이웃인 사레관리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반찬꾸러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담은 밑반찬을 전달하며 크게 환영받고 있다. 남원시의 "사랑의 반찬꾸러미" 사업은 사레관리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사레관리 대상자 중 10가구를 선정해 희망복지지원단이 직접 발로 뛰어 배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먹는다는 것은 생활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따스한 희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정하을 희망복지지원단 계장은 "사랑의 반찬꾸러미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에 처해있는 틈새 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580912 전주시 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사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06-4113	중원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9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7-6655	진안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55	진천지사 433-3084
호지사 010-886-98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88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익산지사 8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 초산동, '제1회 천사데이' 성황리 마쳐**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는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1004 DAY)로 지정하고 지난 4일 '제1회 1004데이' 행사를 가졌다. 천사데이는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추진기로 했다. 초산동 체육회(회장 송용구) 주관으로 개최한 첫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5개 단체 회장과 회원, 지역 내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용복)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육개장으로 정성스레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부녀회 등 5개 단체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